

TV 2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영화 '광해...' 개봉 38일만에 천만 관객 돌파

한국영화로는 올해 '도둑들' 이어 두 번째, 역대 7번째 1000만 클럽 입성

추창민 감독의 '광해, 왕이 된 남자'가 관객 1000만 명을 돌파했다. '광해...'는 20일 오후 8시 배급사 기준으로 18만128명의 관객을 모아 누적관객수 1천만 248명을 기록했다고 이 영화의 투자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가 전했다.



금도 매출액 점유율이 전체 영화 중 30% 안팎으로 높은 상태여서 흥행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관심거리다.

한국영화로는 올해 '도둑들'에 이어 두 번째로 1000만 관객을 동원했으며 역대 한국영화 흥행기록으로는 7번째로 '1000만 클럽'에 들게 됐다. 이 영화는 이병헌 주연의 사극으로 개봉 전부터 관심을 모았으며 개봉 후에는 관객들의 호평이 이어지면서 개봉 4일째 100만, 8일째 200만, 11일째 300만, 16일째 400만, 18일째 500만 관객을 넘었다.

한편 이 영화에 투자하고 제작까지 참여한 CJ엔터테인먼트(이하 CJ)의 수익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객과 왕의 1인 2역을 소화한 배우 이병헌의 연기가 호평을 받았으며 대선 정국에서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대중의 공감을 폭넓게 이끌어냈다는 평을 받고 있다.

21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광해...'는 전날까지 1004만1061명을 동원해 입장권 수입으로 729억여 원의 매출을 올렸다.

'광해...'는 조선시대 광해군과 똑같이 닮은 천만 관객이 압살 위협을 받는 왕을 대신해 왕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이 중 부가세 10%(73억 원)와 영화발전기금 3%(22억 원)를 빼면 633억 원. 이것을 영화관과 절반(317억 원)씩 나눈다. 여기서 배급수수료로 10%(32억 원)를 배급사가 갖

는데, CJ가 배급을 맡았기 때문에 이 돈을 갖는다.

CJ가 챙기는 몫을 모두 합하면 배급수수료(32억 원)와 투자지분(34억 원 이상), 제작지분(40억 원 이상)까지 1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 1000만 관객을 동원한 한국영화의 흥행 순위는 '도둑들'(1302만명 : 배급사 기준, 1298만1884명:영화진흥위원회 기준), '괴물'(1301만9740명), '왕의 남자'(1230만 2831명), '태극기 휘날리며'(1174만6135명), '해운대'(1145만3338명), '실미도'(1108만1000명) 순이다.

연협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22일(을 9월 8일 丙辰)

Table with columns for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and horoscope text for each sign.

EBS program schedule table with columns for time slots and program titles.

Language learning section for 'Almost all of our friends were there' with Korean and English text and a translation exercise.

Language learning section for '磨洋工' with Korean and Chinese text and a translation exercise.